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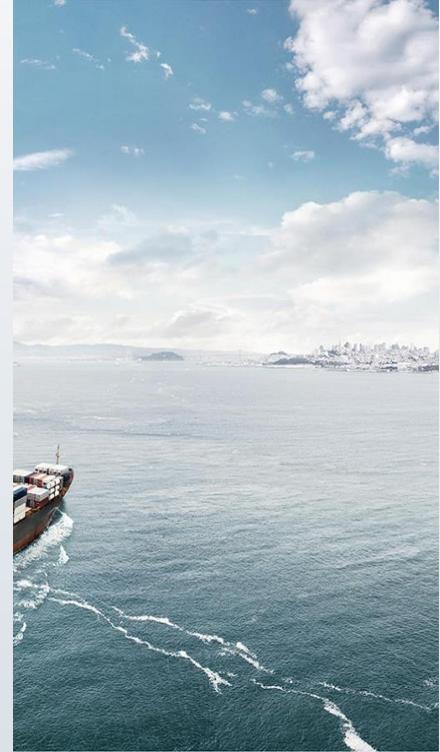


# STL MARKET REPORT

## Weekly Focus No.252

**Updated June 11, 2019**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5
- BC Sales Report	
Tankers	9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4
Key Indicators	17
STL News & Information	19
Contact Information	21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I . ISSUE & TREND

### 1. 삼성중공업, 5 개월 만에 세계 4 위 탈환

삼성중공업이 글로벌 조선그룹 기준 5 개월 만에 이탈리아 크루즈선 전문조선소를 제치고 4 위 자리를 탈환했다. 삼성중공업은 고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실적에 힘입어 2 월 단일조선소 기준 2 위에 오른 후 4 월에는 조선그룹 기준 4 위를 차지했다.

지난 10 일 클락슨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4 월 말 조선그룹 기준 글로벌 수주잔량 순위에서 498 만 CGT(87 척)로 이탈리아 핀칸티에리(469 만 CGT)를 제치고 4 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 2018 년 11 월 4 위 자리를 내준 이후 5 개월 만이다.

삼성중공업은 거제조선소(491 만 CGT)와 중국에 Ningbo 조선소(7 만 CGT)를 운영하고 있다. 거제조선소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540 만 CGT)에 이어 지난 2 월 말부터 단일조선소 기준 수주잔량 2 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선그룹 기준 삼성중공업이 수주잔량 순위 4 위에 오른 것은 LNG 선 등 고부가 선박 수주실적이 늘어난 덕분이다. 삼성중공업은 올 들어 4 월까지 LNG 선 7 척을 수주했다. 이 기간 LNG 선 17 척이 발주된 점을 감안할 때 삼성중공업은 글로벌 LNG 선 발주량의 41%를 수주한 셈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따라 LNG 선 시황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삼성중공업의 LNG 선 수주 행보도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12 개 조선소를 보유하며 수주받은 크루즈선을 전문으로 건조하는 핀칸티에리를 상대로 삼성중공업이 2 개 조선소만으로 수주잔량 4 위에 오른 것은 고무적인 결과다.

아직 클락슨 수주 잔량 통계 실적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삼성중공업은 5~6 월에도 LNG 선 3 척을 추가 수주했다. 척당 가격은 최근 시장가격을 크게 웃도는 1 억 9,000 만달러 수준이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카타르·모잠비크발(發) 대규모 LNG 프로젝트 수주전에도 참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발주 예정인 카타르·모잠비크 등 대규모 프로젝트도 적극 공략해 LNG 선 시장에서 주도권을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I . ISSUE & TREND

### 2. 美·中 무역마찰, 세일 제 2 파에 역풍

중국 정부가 1 일부터 미국산 LNG 에 대한 추가 관세를 25%로 인상함으로써 미국의 신항 LNG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결정(FID) 지연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

리오그란데(텍사스주)와 매그놀리아(루이지애나주) 등 통칭“세컨드웨이브”(제 2 파)라 불리는 벤처 주도 계획에 불확실성이 생겼다. 중국이 미국산 조달을 줄이고 중동이나 호주산을 늘린 경우 해상 수송에 톤마일 축소의 마이너스 영향이 생긴다.

이번 미국산 LNG 의 관세 인상은 5 월 10 일 미국 정부의 대중 관세 인상에 대한 보복 조치이다. 중국은 작년 가을 미국산 LNG 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 국적선 관계자는 이번 인상 영향에 대해“스팟 시장에 대해서는 중국은 이미 작년 가을부터 미국산 조달을 줄이고 있어 큰 충격은 없다”라며“중장기 조달 계약에서는 미국산 구입 보류가 확산될 지도 모른다”고 지적한다.

특히 영향이 큰 것이 미국의 신항 프로젝트이다. 미국 세일가스(비재래형 가스) 유래 LNG 시장에서는 2023 년 - 2025 년쯤의 가동을 목표로 하는 신항 프로젝트가 난립하고 있다. 앞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지방 가스회사의 LNG 수요의 수혈처로서 기대되고 있었다. 하지만 미중 무역마찰로 인해 중국의 중소 가스회사는 앞으로 정부의 의향에 따라 미국산 조달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2018 년 LNG 수입량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5,400 만톤으로 확대됐다. 조달원 상위 3 개국은 호주 2,314 만톤, 카타르 929 만톤, 말레이시아 599 만톤이고 미국은 216 만톤으로 6 위이다.

### 3. 대우조선해양, '디지털 가상선박' 연구 착수

대우조선해양이 국내외 주요 기관들과 함께 '디지털 트윈십(DIGITAL TWIN SHIP)'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있는 대상과 똑같은 복사본을 디지털 가상세계에 만드는 것이다. 실제와 동일한 환경의 선박을 가상 세계에 만들어놓고 온갖 악조건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장 적합한 운항 방식을 찾을 수 있다.

## I . ISSUE & TREND

대우조선해양은 국제선박박람회 '노르시핑 2019'이 열리고 있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디지털 트윈십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한국해양대학교, 해운 IT 전문업체인 핀란드 NAPA, 엔진 시뮬레이션 전문업체 오스트리아 AVL LIST 등이 참여했다.

공동 연구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실제 선박 건조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십의 디자인 개발과 전체 프로젝트 추진을 총괄하고, 한국해양대학교는 위성통신을 활용한 선박 데이터 교환 인프라를 구축한다. NAPA는 디지털 선박에 대한 통합 운영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AVL LIST는 디지털 엔진 관련 시뮬레이션 부분을 맡는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시제품 개발과 원격 운영센터 구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회사 관계자는 "디지털 트윈십을 통해 효율적인 선박의 운항과 관리가 가능하고, 사고 예방 등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또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부각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조선해양분야에 접목시킴으로써 수준 높은 고객서비스와 미래기술시장 선점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 4. 원자재값 곤두박질... 먹구름 짙어진 글로벌 경제

산업의 기초소재여서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동, 니켈, 아연 등 비철금속 가격이 급락하고 유가 상승세도 확연히 꺾여 세계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광물종합지수는 1,580.61로 3개월 전인 3월 1일의 1,714.49에 비해 7.81% 하락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1,625.78과 비교하면 최근 5일 새 5.17%나 단기 급락했다.

품목별로 국제 동 가격은 3월 1일 T당 6,572달러에서 6월 3일 5,796달러로 11.81% 하락했고, 니켈 가격은 같은 기간 T당 1만 3,160달러에서 1만 1,860달러로 9.88% 떨어졌다. 아연 가격 역시 같은 기간 T당 2,839달러에서 2,615달러로 7.89% 하락했다.

이처럼 동, 니켈 등 비철금속 가격이 급락한 이유는 이 원자재들이 경기에 민감해 최근 미·중 간 무역분쟁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I . ISSUE & TREND

---

동 관련업계 관계자는 "동 가격 하락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통상 동 가격이 T당 7,000 달러 전후가 돼야 동 산업이 안정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속 가격의 하방리스크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세계 경기 침체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공급차질 가능성이 제기된 구리와 재고가 부족한 니켈 등은 반등의 여지가 있으나 전반적 위험회피(RISK-OFF) 심리를 감안할 때 제한적 범위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올 들어 상승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도 4월 하순을 정점으로 하락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4월 23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배럴당 66.30 달러에 거래되던 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이달 5일 현재 51.68 달러로 22.1%나 급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원유와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지만 투자심리 및 수요가 감소하면서 무작정 재고를 쌓아둘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길어지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져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그 영향을 우리나라도 그대로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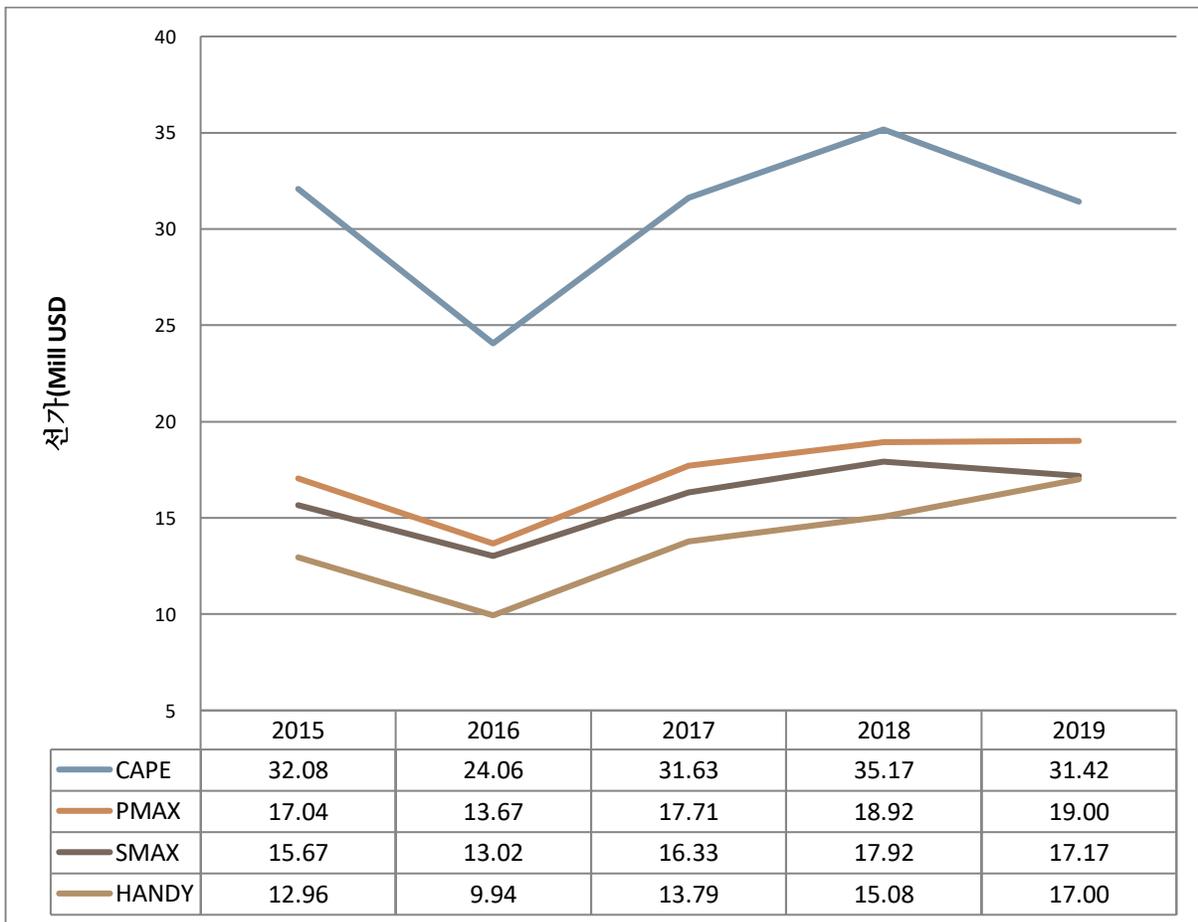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5	2016	2017	2018	2019
Capesize 180K	32.08	24.06	31.63	35.17	31.42
	-31.45%	-24.99%	31.43%	11.20%	-10.67%
Panamax 76K	17.04	13.67	17.71	18.92	19.00
	-30.16%	-19.80%	29.57%	6.82%	0.42%
Supramax 58K	15.67	13.02	16.33	17.92	17.17
	-36.04%	-16.91%	25.44%	9.69%	-4.20%
Handysize 37K	12.96	9.94	13.79	15.08	17.00
	-33.20%	-23.32%	38.78%	9.37%	12.73%

###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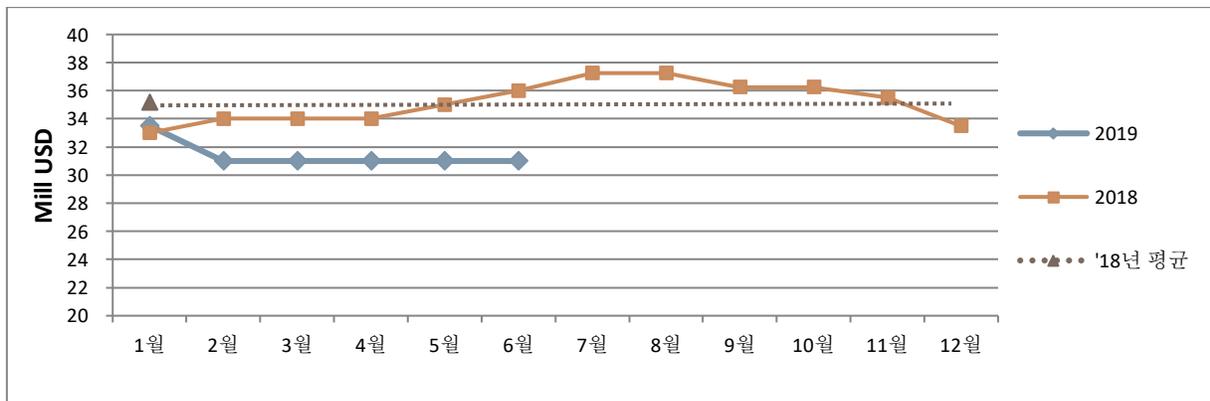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19	CAPE 180k	선가	33.50	31.00	31.00	31.00	31.00	31.00	31.42
		전월대비	0.0%	-7.5%	0.0%	0.0%	0.0%	0.0%	-
		전년대비	1.5%	-8.8%	-8.8%	-8.8%	-11.4%	-13.9%	-10.7%
	PMAx 76k	선가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전월대비	0.0%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2.7%	2.7%	0.0%	0.0%	0.0%	0.0%	0.4%
	SMAx 58k	선가	18.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17
		전월대비	0.0%	-5.6%	0.0%	0.0%	0.0%	0.0%	-
		전년대비	2.9%	-2.9%	-5.6%	-5.6%	-5.6%	-5.6%	-4.2%
	HNDY 37k	선가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전월대비	13.3%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21.4%	21.4%	13.3%	9.7%	9.7%	6.3%	12.7%
2018	CAPE	33.00	34.00	34.00	34.00	35.00	36.00	35.17	
	PMAx	18.50	18.50	19.00	19.00	19.00	19.00	18.92	
	SMAx	17.50	17.50	18.00	18.00	18.00	18.00	17.92	
	HANDY (32k)	14.00	14.00	15.00	15.50	15.50	16.00	1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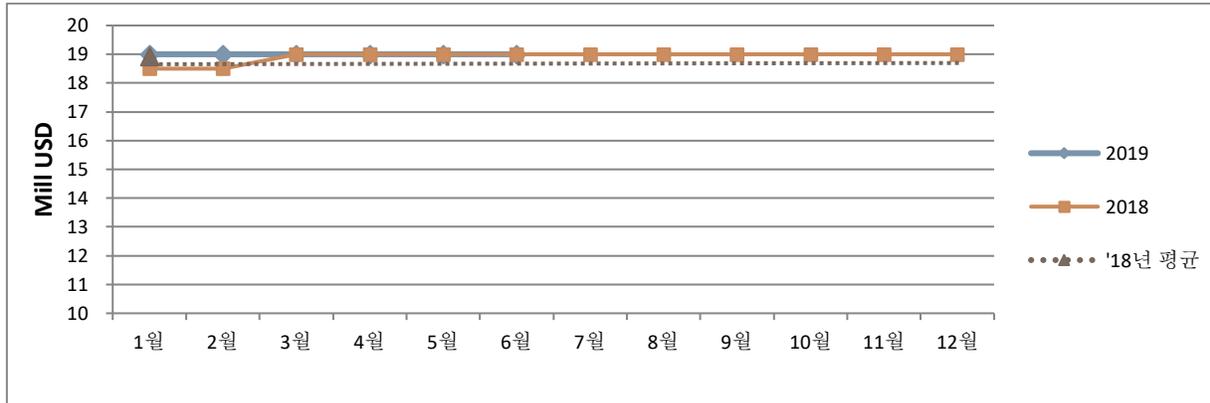
###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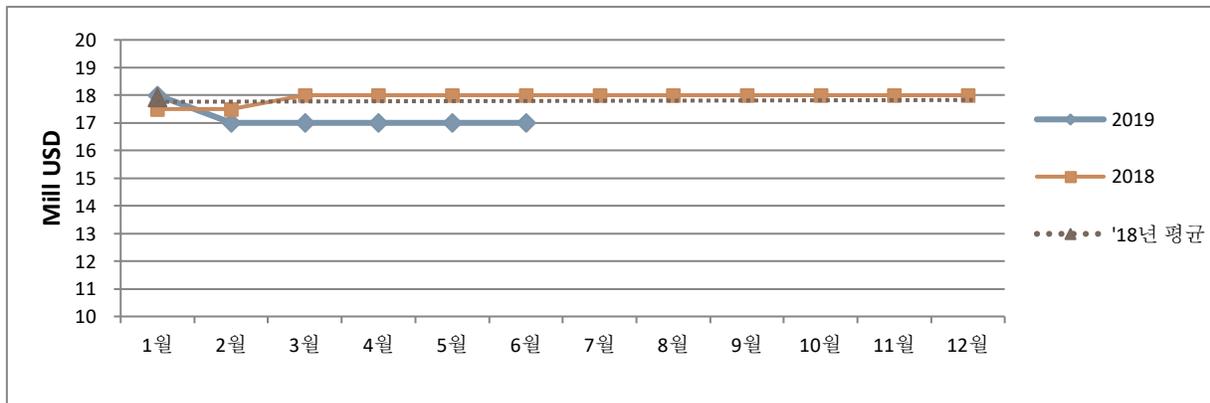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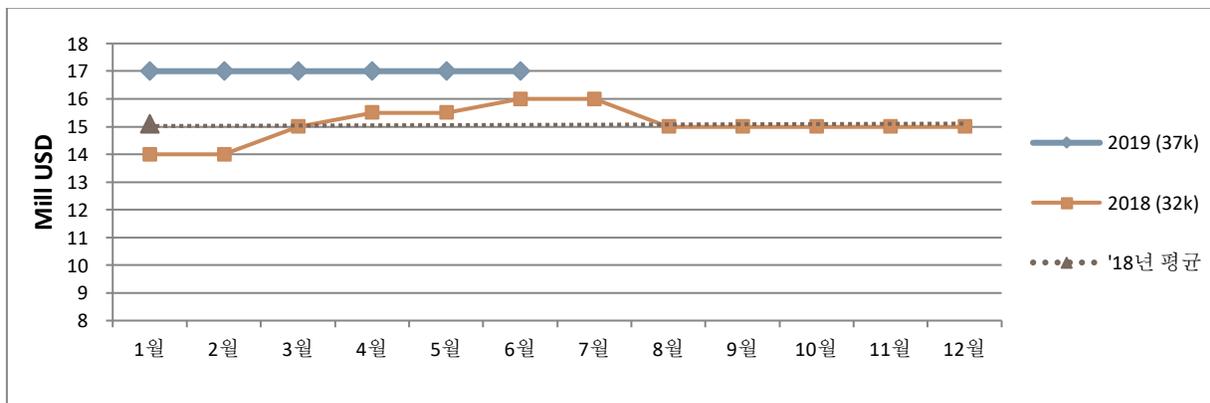
### □ Panamax



### □ Supramax



### □ Handy





## II . BULK CARRIER

###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ROYAL MAYBACH	93,272	2010	CHINA	B&W		13.8	Undisclosed buyer
BC	BRILLIANT CENTURY	91,879	2002	JAPAN	B&W		8.1	Undisclosed buyer
BC	CEMTEX WISDOM	77,598	2004	TAIWAN	B&W		7.1	Chinese buyer
BC	GH FRANKEL	63,227	2012	CHINA	B&W	C 4x35t	16.9	European buyer
BC	LAKE DYNASTY	55,638	2009	JAPAN	B&W	C 4x30t	13.1	Lebanese buyer
BC	THREE RIVERS	30,000	2010	CHINA	WART	C 3x30t	8.1- 8.3	Undisclosed buyer, incl t/c til Jan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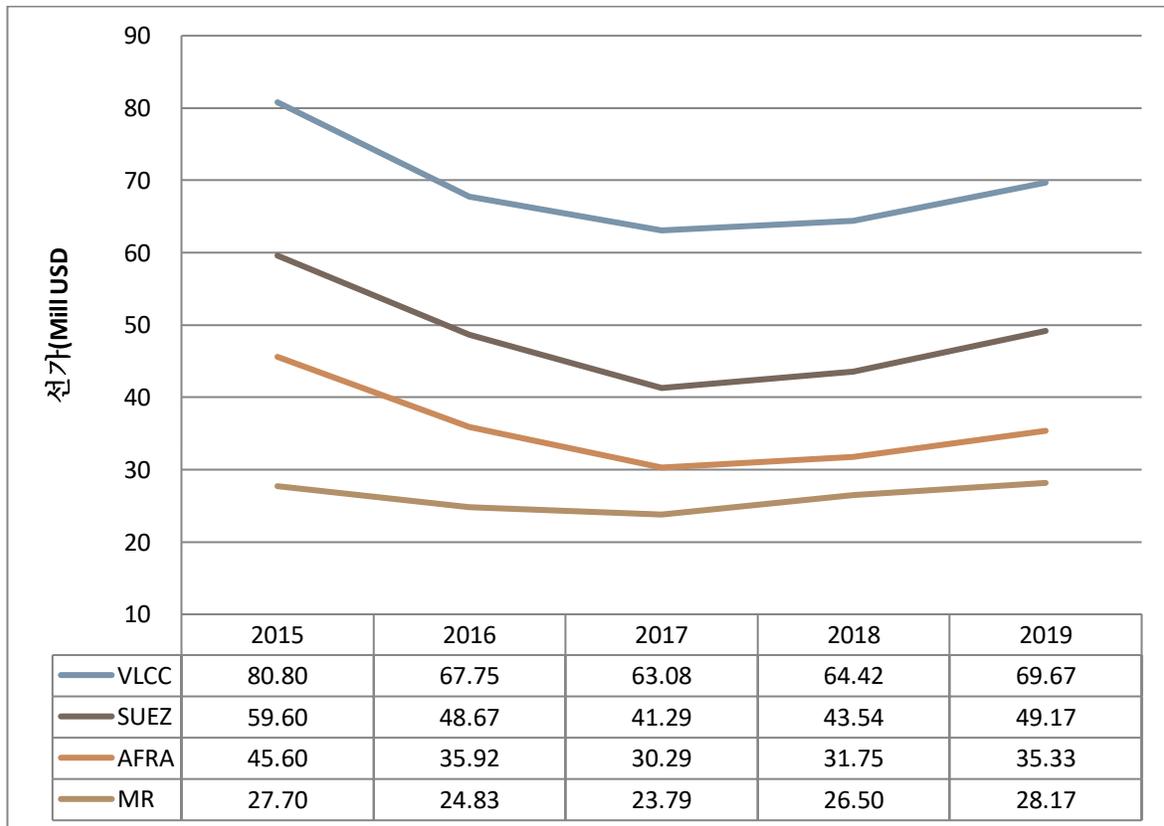
###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VLCC 310K	80.80	67.75	63.08	64.42	69.67
	9.04%	-16.15%	-6.89%	2.11%	8.14%
Suezmax 160K	59.60	48.67	41.29	43.54	49.17
	17.32%	-18.34%	-15.15%	5.45%	12.92%
Aframax 105K	45.60	35.92	30.29	31.75	35.33
	17.83%	-21.24%	-15.66%	4.81%	11.29%
MR 51K	27.70	24.83	23.79	26.50	28.17
	2.97%	-10.35%	-4.19%	11.38%	6.29%
Chemical Tanker IMO II 13K	12.60	13.92	12.42	11.77	11.04
	-3.08%	10.45%	-10.78%	-5.20%	-6.19%

####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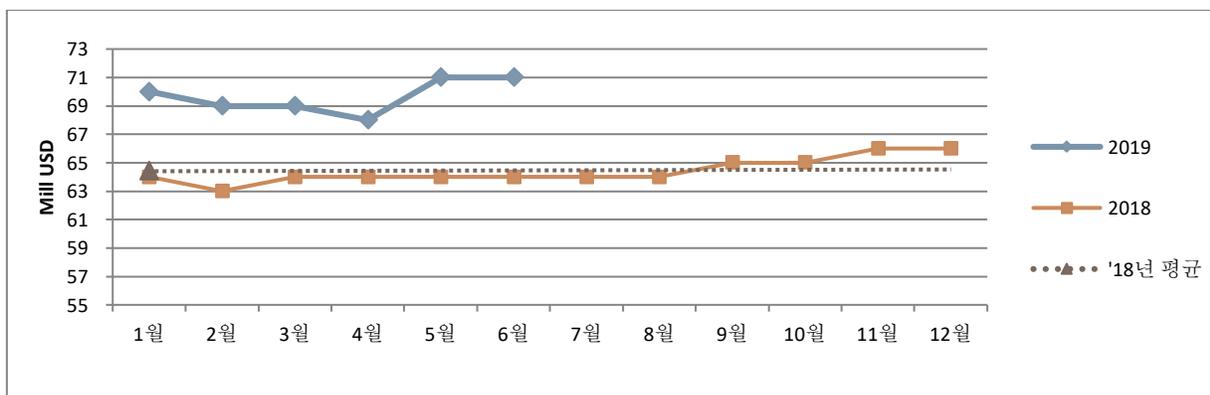




###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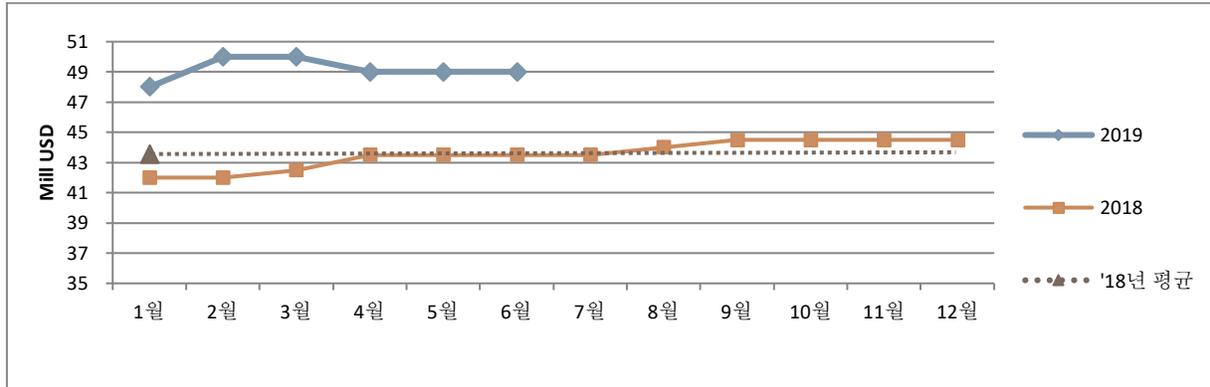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18	VLCC 310K	선가	70.00	69.00	69.00	68.00	71.00	71.00	69.67
		전월대비	6.1%	-1.4%	0.0%	-1.4%	4.4%	0.0%	-
		전년대비	9.4%	9.5%	7.8%	6.3%	10.9%	10.9%	8.2%
	SUEZ 160K	선가	48.00	50.00	50.00	49.00	49.00	49.00	49.17
		전월대비	7.9%	4.2%	0.0%	-2.0%	0.0%	0.0%	-
		전년대비	14.3%	19.0%	17.6%	12.6%	12.6%	12.6%	12.9%
	AFRA 105K	선가	35.00	35.00	35.00	35.00	35.00	37.00	35.33
		전월대비	6.1%	0.0%	0.0%	0.0%	0.0%	5.7%	-
		전년대비	9.4%	16.7%	12.9%	9.4%	9.4%	15.6%	11.3%
	MR 51K	선가	28.00	28.00	28.00	28.00	28.00	29.00	28.17
		전월대비	1.8%	0.0%	0.0%	0.0%	0.0%	3.6%	-
		전년대비	12.0%	12.0%	7.7%	4.7%	4.7%	8.4%	6.3%
CHEM IMO2 13K	선가	11.00	11.25	11.00	11.00	11.00	11.00	11.04	
	전월대비	0.0%	2.3%	-2.2%	0.0%	0.0%	0.0%	-	
	전년대비	-15.4%	-10.0%	-12.0%	-10.2%	-6.4%	-4.3%	-6.2%	
2017	VLCC	64.00	63.00	64.00	64.00	64.00	64.00	64.42	
	SUEZ	42.00	42.00	42.50	43.50	43.50	43.50	43.54	
	AFRA	32.00	30.00	31.00	32.00	32.00	32.00	31.75	
	MR	25.00	25.00	26.00	26.75	26.75	26.75	26.50	
	CHEM	13.00	12.50	12.50	12.25	11.75	11.50	11.77	

####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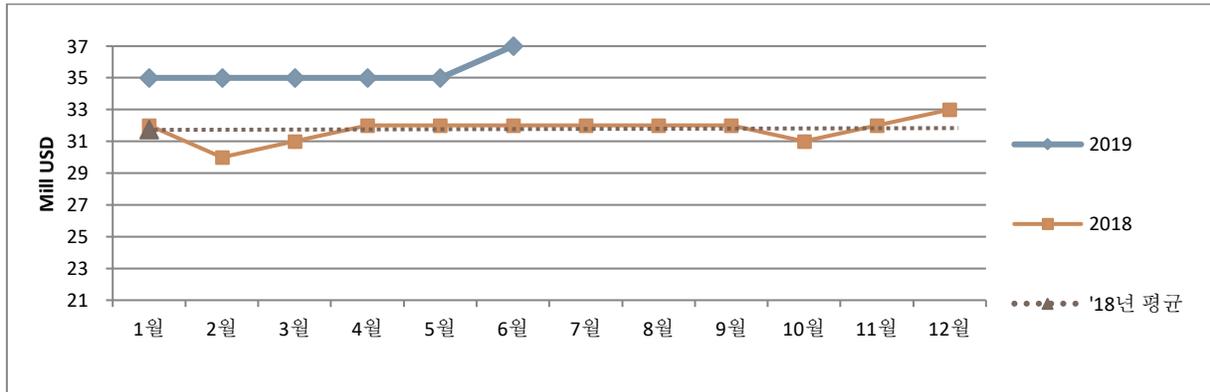


###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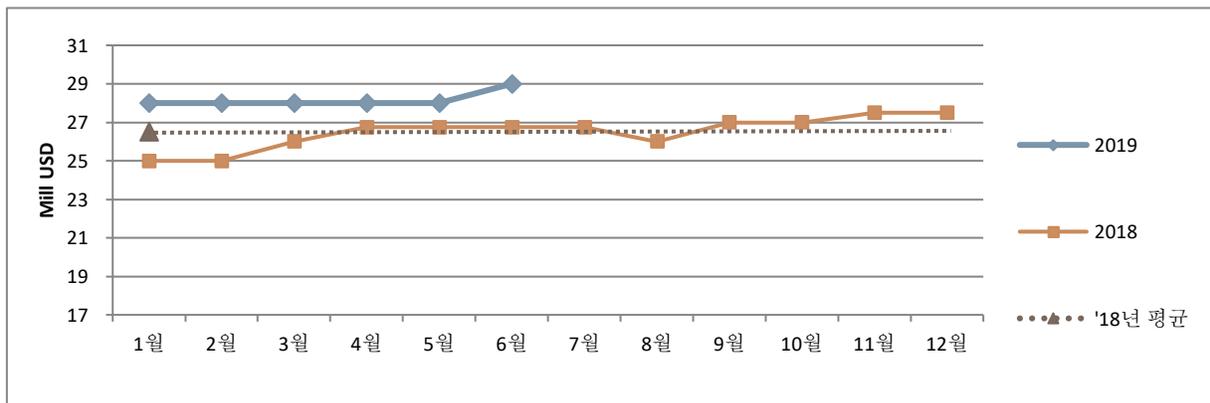
#### □ SUEZMAX-160K



#### □ AFRAMAX-105K



#### □ MR-51K



### III. TANKER

#### IV-1. Tanker Sales Reported

#####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BRIGHTOIL GRAVITY	319,911	2012	KOREA	B&W		61	Auction sale, Hong Kong buyer
TANKER	BRIGHTOIL GRACE	319,778	2013	KOREA	B&W		61.5	Auction sale, Greek buyer (Delta Tankers)
TANKER	DAEWOO 5457	300,000	2020	KOREA	B&W		98	Undisclosed buyer
TANKER	DAEWOO 5460	300,000	2019	KOREA	B&W		98	
TANKER	MUCUA	113,010	2008	CHINA	B&W		20.1	Danish buyer
TANKER	BRIGHTOIL LION	107,525	2010	JAPAN	B&W		24-26	Singaporean buyer (Eastern Pacific)
TANKER	TORM GUNHILD	45,457	1999	KOREA	B&W		6	Indian buyer (Ind Aust Maritime)
OIL/ CHEM	CPO NEW ZEALAND	51,763	2011	KOREA	B&W		20.75	Danish buyers (Torm)
OIL/ CHEM	CPO SINGAPORE	51,763	2011	KOREA	B&W		20.75	
OIL/ CHEM	CPO MALAYSIA	51,763	2011	KOREA	B&W		20.75	
OIL/ CHEM	CPO AUSTRALIA	51,763	2011	KOREA	B&W		20.75	
OIL/ CHEM	KANDAVA	37,300	2007	KOREA	MAN	2&3	11.6	Italian buyers (Gestioni), trading cpp, ICE 1B
OIL/ CHEM	BOW TONE	33,624	2009	JAPAN	MITSU		18.3	Norwegian buyer (Hansa Tankers), basis ss/dd due
OIL/ CHEM	AULAC VENUS	16,830	2008	CHINA	ETC	2	7.3	Greek buyer



### III. TANKER

####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MSC NINGBO	92,094	2004	KOREA	SULZ	7849	TEU	18.5	Greek buyer, Incl. T/C back
CONT	SINAR SANGIR	21,937	2008	JAPAN	B&W	1708	TEU	8.5	Chinese buyer
CONT	SINAR SUBANG	21,935	2008	JAPAN	B&W	1708	TEU	8.5	
MPP	ZEA JAKARTA (heavy lifter)	29,901	2003	CHINA	B&W	1888	TEU	13.15	U.K. buyer
MPP	RICKMERS DALIAN (heavy lifter)	29,827	2004	CHINA	B&W	1888	TEU	1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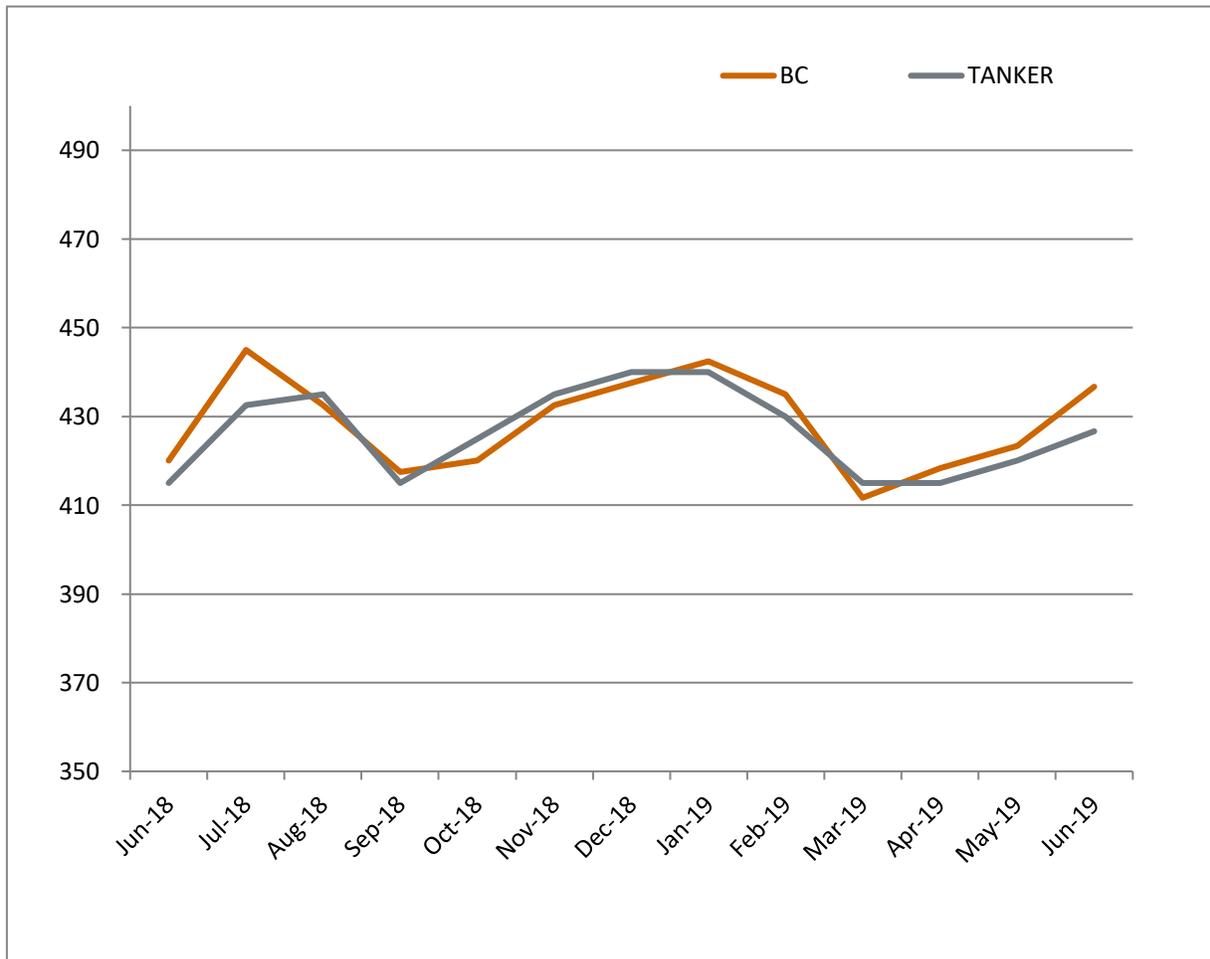


## IV. DEMOLITION

###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7 평균		2018 평균		2019 평균		2018 년 6 월	2019 년 6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365.21	37.5%	432.92	18.5%	421.67	-2.6%	435.00	426.67	0.0%	-1.9%
BC	370.83	38.5%	440.63	18.8%	425.00	-3.5%	432.50	430.00	0.0%	-0.6%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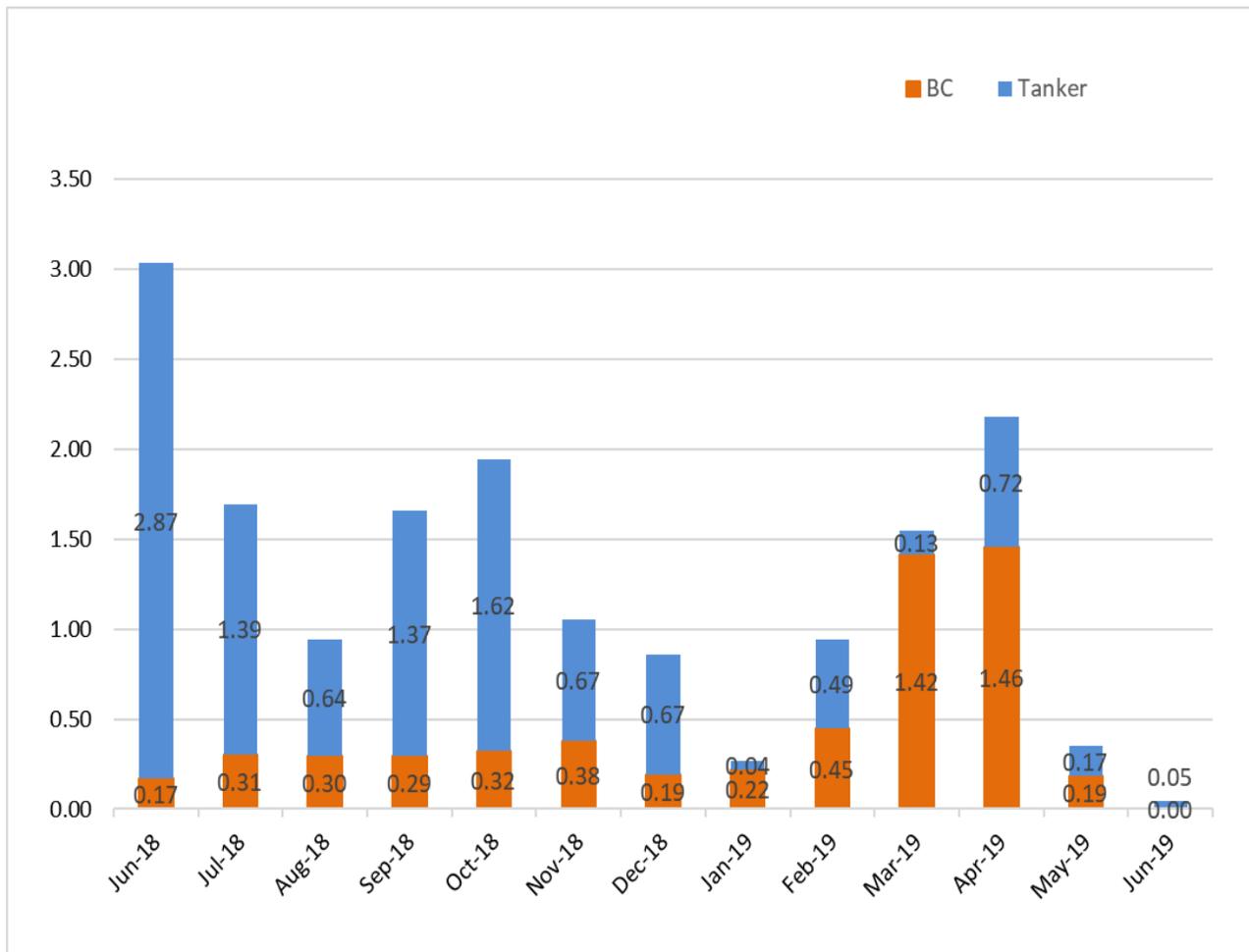


## IV. DEMOLITION

###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8 년		2019 년 누적			2018 년 6 월		2019 년 6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0.86	195	1.60	7.6%	37	19.0%	2.87	16	0.05	-98.4%	2	-87.5%
BC	4.20	112	3.73	88.8%	51	45.5%	0.17	11	0.00	-100.0%	0	-100.0%

###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 IV. DEMOLITION

### V-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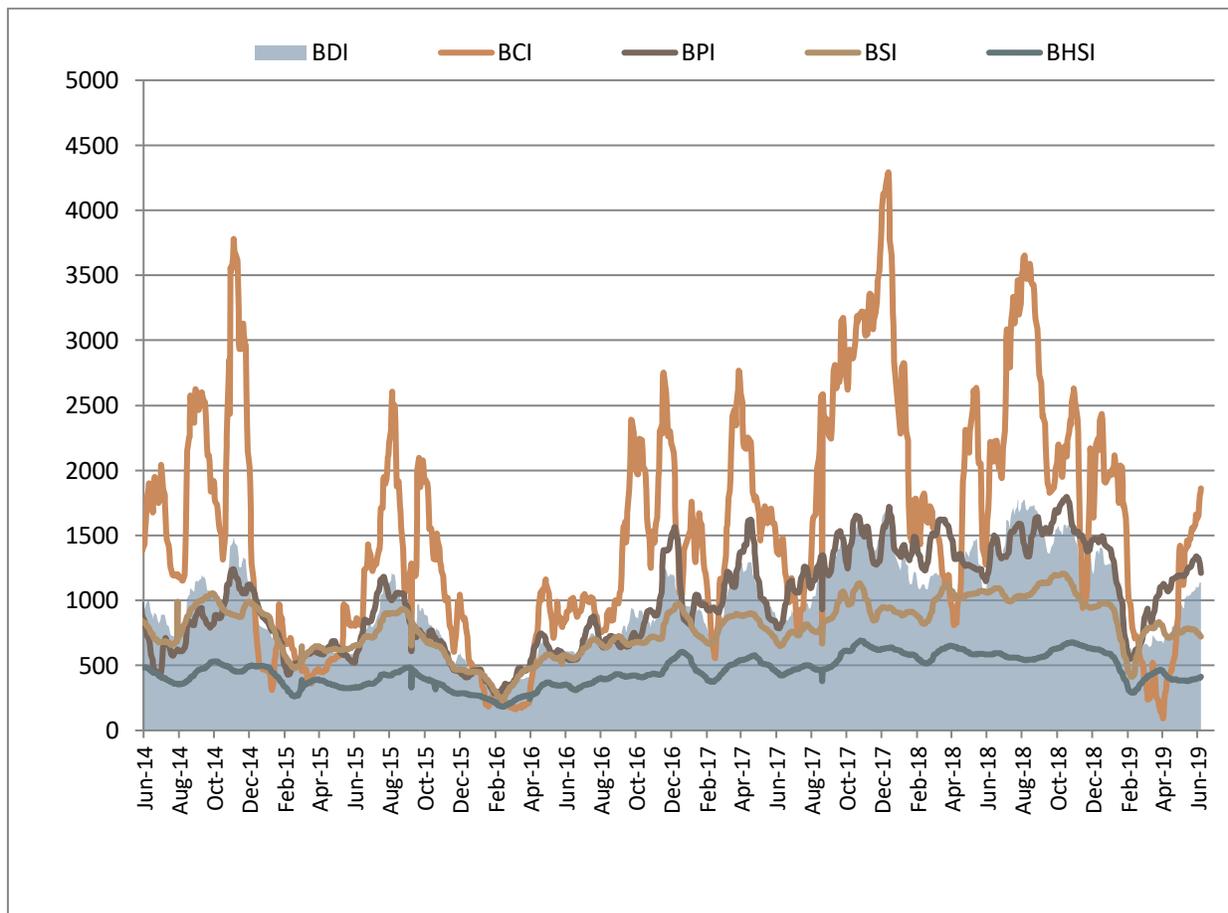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BC	GREEN GARNET (chip carrier)	48,772	9,186	1996	JAPAN	MITSU	425	INDIA, green recycling
GC	BRAVE M	9,498	3,616	1985	JAPAN	HANSH	426	INDIA
OIL /CHEM	BOW JUBAIL (STST)	37,449	11,049	1996	NORWAY	B&W	827	INDIA , incl. 2,250 tons solid stainless steel



## V . KEY INDICATORS

### 1) Baltic Index

	2019-06-07	2019-05-31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1138	1096	▲42.00	1774	290
BCI	1862	1620	▲242.00	4293	92
BPI	1213	1335	▼-122.00	1796	282
BSI	719	752	▼-33.00	1207	243
BHSI	412	398	▲14.00	690	183





## V . KEY INDICATORS

###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395.00	▼-1.00	373.00	▼-9.00	363.50	▼-21.00
IFO180	427.00	▼-12.00	405.50	▼-14.50	413.50	▼-18.50
MGO	566.00	▼-28.50	546.00	▼-39.00	596.50	▼-31.50
LSMGO	567.00	▼-25.00	533.00	▼-28.00	-	-

❖기준일 : 6 월 7 일 기준

### 3) Exchange Rate

구분	2019-06-07	2019-05-31	CHANGE
미국 달러	1179.80	1190.00	▼-10.20
일본 엔(100)	1087.87	1085.82	▲2.05
유로	1330.70	1324.83	▲5.87
중국 위안	170.35	171.77	▼-1.42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 VI. STL NEWS & INFORMATION

---

### [중국비자신청 공지사항] – by. STL Gtour

■ 2019년 6월 1일부터 중국비자 신청 내용이 많이 까다로워지고 엄격해졌습니다. 변경된 내용 공유하오니 중국비자 신청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공통사항

- '여권 원본' 및 '규정에 맞는 비자신청용 사진'을 가지고 여행사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 신청서는 원본으로 자필 작성하며, 본인 이름 및 서명, 도장 날인 필요
- 이전 중국비자 발급일자 및 발급지 정확하게 기재
- 중국 입국 후 모든 일정을 정확하게 기재

✓ 관광비자

- 반드시 실제 체류하는 호텔 및 장소 기입 (현지에 확인 가능성있음)

✓ 상용비자

- 명함 추가 제출 (재직증명서 불가)
- 추후 중국 입국 시, 비자신청 때 제출했던 현지 회사의 초청장 및 연락처를 지참해야 함
- > 없으면 입국 거절될 수도 있음
- 방문도시가 두 곳 이상일 경우, 각 도시의 초청장을 소지해야 함

■ 관련기사 “中대사관 비자발급 요건 강화...미중 무역전쟁 여파?”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 기업인들의 상용(비즈니스용) 비자 발급 요건을 까다롭게 바꾼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와중에 한국이 유탄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외교부와 여행업계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달 초부터 비자 발급과 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한 규정을 시행 중이다. 상용 비자의 경우 명함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도장 날인과 과거 중국 방문 일자리는 물론 체류 기간 세부 일정을 하루 단위로 꼼꼼히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VI. STL NEWS & INFORMATION

---

상용 비자는 사업·문화·교육·과학기술 교류 목적의 비자로 중국 외교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의 초청장이 있어야 발급을 받는다.

상용 비자와 함께 개별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일반 관광 비자의 발급 절차도 엄격해졌다. 비자 발급을 대행하는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이전에는 여행사에서 임의로 서명을 대신해도 별 문제가 없었고 숙소 명칭은 굳이 기록하지 않았다”며 “지난 3일부터 여행자 본인이 서명을 직접 하고 숙소는 물론 일자별 관광 일정도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관광 비자의 경우 여행객의 소속 회사가 어디인지를 증명하는 명함은 따로 첨부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중국대사관이 비자 발급 요건을 변경하면서 당장 국내의 주요 기업들은 이 같은 사실을 사내 임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긴급 공지문을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한국에 대해 “미국 편에 서지 말라”며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의 IT 기업들이 중국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대사관은 “최근 비자 발급을 대행하는 여행사의 허위 자료 신고가 너무 많아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급 기준을 일부 강화한 것”이라며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라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출처: 서울경제, 2019.06.04]



## VII. CONTACT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 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  
 (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snp@stlkorea.com  
 sancho@stlkorea.com  
 (Personal)

**Leo J.M. Jung (정재문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9  
 Mob.010-3273-4008  
 snp@stlkorea.com  
 leo@stlkorea.com (Personal)

| **RESEARCH**

**Jiwon Song (송지원 사원)**  
 Tel. 070-7771-6417  
 Mob. 010-4042-9803  
 snp@stlkorea.com  
 jiwon@stlkorea.com  
 (Personal)

| **AGENCY OPERATION** (오수현 과장 Tel. 070-7771-6402)

| **FERROALLOY LOGISTICS** (안지영 차장 Tel. 070-7771-6405)

| **WAREHOUSE MANAGEMENT** (진정식 과장 Tel. 070-7771-6406)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기업/일반 단체 (이현성 부장 Tel. 070-4800-0153)  
 항공 예약 (김영하 실장 Tel. 070-4800-0151)  
 패키지/허니문/골프 (김홍모 대리 Tel. 070-4800-0150)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 (이진행 실장 Tel. 010-2777-4027)